

# 永川仙源洞 鐵佛坐像

鄭 永 鎬

昨年(一九六七年)度 十二月中旬 永川地區調査時 臨阜面に 갔을 때 路上에서 이곳의 有志인 慎判帝(六一才)①氏를 만나 佛像의 存在를 이야기 듣고 이분의 斡旋으로 洞面 仙源洞의 鐵佛坐像 一軀를 調査한 바 巨大하며 秀麗한 羅代의 傑作品으로서 우리나라 佛像研究에 貴重한 資料가 되겠기에 簡單히 紹介한다.

麗末의 忠臣인 鄭圃隱先生의 影禎을 奉安하고 있는 臨阜書院에서 北方으로 約四km되는 곳에 仙源洞 部落이 있고 이 마을 北쪽 山麓에 二間瓦屋이 있어 이를 「仙定寺」라 稱하며 그 屋內에 鐵造如來坐像을 主尊으로 奉安하고 있다. 이 仙定寺란 寺名은 어데서 由來된 것인지 알 수 없으며 東國輿地勝覽이나 古蹟調査資料等 諸文獻에도 記錄이 전혀 없으므로 佛像은 近年의 出土物로 推定되며 寺名은 이곳 住持라 自稱한 鄭致達(五一才)②氏가 任意로 呼稱한 것 같다. 그런데 이 洞里에서는 이 鐵佛에 對하여 두가지로 由來를 말하고 있다.



첫째는 張順植(十八才)君의 말……洞里어른의 말에 依하여 이 鐵佛은 日帝時代에 農夫가 밭을 耕作하던中 언뜻 밭의 밭에서 發掘하여 岩石위에 放置하였던 것을 十七年前에

現堂宇를 建立하고 主尊으로 奉安하였으며 四年前에 鍍金하여 現今까지 이르렀다고 말한다.

둘째는 洞長의 말(再調査時들은 말)……이 鐵佛은 數百年前부터 이곳 巨大한 岩盤위에 奉安되었던 洞里의 守護佛로서 洞民이 禮拜를 올리고 있었던 바인데 十九年前(檀紀四二八二年)③에 現法堂을 創建 奉安하였으며 四年前에 金箔을 漆하였다고 한다. 以上 두가지 말을 綜合檢討해본다면 現在의 仙定寺는 鐵佛奉安을 爲하여 最近에 세워진 것이며 이 鐵佛은 出土品임에만은 틀림없고 그 出土時期는 解放前後한 때로 보고 싶다. 그 理由는 古蹟調査資料에 揭載되어 있지 않으니 그 以前の 出土된 것 같지는 않고④ 또 前記 張君의 말이 筆者가 初踏時에 들은 말로서 洞民의 洞里어른으로부터 傳聞한바로 信賴性있으며 한편 法堂도 最近에 創建되었다는 것 등이라 하겠다. 如何든 附近 耕作地에는 瓦片이 散亂하고 破壞된 礎石片이 殘存한 點으로 보아 이 一帶가 寺址로 推定되며 鐵佛出土의 可能도 充分한 곳이다. 現在 座臺는 큰 岩盤으로 되어있고 洞民들이 말하고 있거나 佛壇을 固定시켰으므로 調査하지 못함은遺憾스러웠다. 寶髮에는 黑色을 漆하고 相好各部에 彩色하였으며 全身이 燦爛한 金箔이어서 原形을 그릇치고 있다.

全高一·五一m의 巨像으로서 螺髮의 頭頂에는 큼직한 肉髻가 있으며 眉間에는 四年前에 新造했다는 水晶製白毫가 있다. 相好는 圓滿하며 兩眉、眼、鼻、口唇等이 整齊되었고 兩耳는 길지 않으나 목에 三道가 둘러있어 威嚴이 있어 보인다. 法衣는 右肩偏袒으로 臍前과 左腕에 걸친 衣文은 流麗하게 흘러 兩膝을 덮었고 앞자락이 三山形으로 퍼졌다. 背面에도 左肩上으로부터 넘겨진 二重의 衣帶에서 下部에 까지 내려진 衣文이 流麗하게 彫刻되어 있다. 兩足은 膝上에 露出되었는데 足指의 表現이나 安定된 姿勢의 兩膝이 注目된다.

手印은 兩手를 缺失하였으므로 印相을 알 수 없으며 現手印은 最近의 任意補修이다. 發掘當時의 傷痕인지는 모르나 頸部에 若干의 磨痕이 있고 右腕一部와 兩手が 破損된 것 外에는 各部가 完全하다. 특히 堂堂한 兩肩과 寫實的이고 豐滿美麗한 胸部의 表現은 新羅盛代의 諸佛像彫刻에

서 볼 수 있는바라 하겠다. 實測値는 (cm)……總高一五一 肩幅七七 膝幅一〇  
一 臍幅三一 全厚九五 頭高四九 胸高四八 膝高一九 胴體厚三六이다.

現存 巨大한 新羅代의 金銅製 또는 鐵製佛像으로는 造成年代가 뚜렷한 寶林寺 鐵造毘盧舍那佛<sup>④</sup>과 到彼岸寺 鐵造毘盧舍那佛<sup>⑤</sup>을 비롯佛國寺 金銅阿彌陀如來坐像과 毘盧舍那佛坐像 그리고 實相寺 鐵造如來坐像、證心寺 鐵造毘盧舍那佛 等이 있는데 여기에 紹介하는 仙源洞 鐵佛坐像은 그 形態尊容이 각지 양음으로 彫刻上 이들 羅代佛과 同一치 않은 部分도 있다. 그러나 大體로 均整한 姿勢나 堂堂한 兩肩과 胸部、그리고 膝部의 鄭重하고 安定한 樣式手法으로 보아 以上の 諸鐵佛과 같기보다는 오히려 吐含山 石窟庵本尊의 姿態를 聯想케 하고 있다<sup>⑦</sup>. 勿論 造成材料가 相異하다 할지나 그래도 佛像造成樣式의 系譜는 그 材料에 拘礙됨이 없이 더듬어야 될 것으로 意料되는 바 한편 地域의 으로 볼 때 도 이곳 永川과 慶州와는 咫尺之間이므로 吐含山의 佛像造成樣式도 充分히 踏襲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sup>⑧</sup>.

그러므로 筆者는 이 鐵佛이 石窟庵本尊의 造成手法을 充分히 이어받고 具現한 바로서 前記한 諸佛像보다는 年代가 앞서는 이른 바 八世紀末의 造成으로 推定코자 한다. 各部樣式에 있어서도 實相寺 鐵造如來坐像이나 長谷寺 鐵造藥師如來坐像、寶林寺 鐵造毘盧舍那佛坐像、佛國寺 金銅阿彌陀如來坐像 等보다는 오히려 堂堂하고 均整한 手法을 보이고 있어 亦是 新羅盛代의 秀作으로 보아야 될 것이다.

끝으로 願컨대 이렇듯 貴重한 鐵佛이 發見調査된 것은 多幸이나 이 遺物의 健實한 保存策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註① 愼氏는 現在 臨皇面の 公醫로 있으며 이 地方有志로서 地理歷史에도 博識하다는데 처음 鐵佛을 發見한 것도 愼氏였다고 한다. 氏의 말에 依하면 本是 이 곳에 遺存하였는지 與否는 모르나 三年前에 이 洞里를 探訪하여 비로소 이 鐵佛을 過眼하였고 이후에 面內에 所聞이 났다한다.

② 鄭氏의 一定한 居處와 行方은 알 수 없다하며 恒時 出他中이라 하는데 筆者가 訪問時에도 安東地區의 布教次 떠났다고 하며 出他한 지 오래되었다고 한다.

③ 法堂入口에 「檀紀四二八二年陰四月初八日……」의 「發願文」이 揭示되어 있다.

④ 萬若 오래前부터 出土되었으면 반드시 調査資料에 紹介되었었을 巨作이다.

⑤ 新羅 憲安王三年——八五八年 造成

⑥ 新羅 景文王五年——八六五年 造成

⑦ 左肩에서 내려진 衣帶나 兩膝과 法衣의 앞자락 等은 兩佛像이 恰似하다.

⑧ 地理의 으로 보아 遠距離의 것보다는 가까운 慶州의 諸樣式手法을 쉽게 踏襲할 수 있다.

資 料

泗川灣을 中心한 先史遺蹟

金 相 朝

泗川灣을 中心하여 無數히 散在해 있는 先史時代遺蹟을 앞으로 어느 學術團體에서 調査함에 있어 參考가 되고 질잡이가 될까하여 所在地名과 數字만을 밝혀두기로 한다. 泗川이라고 하면 그리 알려지지 않은 우 리나라 南端海岸의 조그마한 郡이기도 하다. 그러나 無數한 支石墓와 貝塚들이 散在해 있다.

晉州에서 十二km南으로 달리면 泗川郡所在地인 泗川邑에 이른다. 邑에서 東쪽으로 뻗은 길이 바로 統營 固城을 잇는 統固線街道이다. 邑에서 約三km許에 正東面所在地에 이르고 이곳 前方、一〇〇m路邊에 淸津狀記念碑가 서 있는데 이곳에서 東쪽 江진너 마을이 魯川里다. 이 마을 入口 畚中心에 民墓가 一基있는데 그 周圍에 支石墓三基가 있고 東進하던 固城境界線 못미쳐 江右면으로 좁다랗고 길게 뻗은 들판이 있으니